

<“Orthodox Identity for Byzantine Theologians, Heresiologists, and ‘Inquisitors’ : A Byzantine View of Popular Faith in the Twelfth Century”에 관한 토론문>

- 발표자 : 히사츄구 쿠사부 (Hisatsugu KUSABU)

- 토론자 : 황원호 (WONHO HWANG)

<목차>

- 1) 서론
- 2) 비잔티움 정교 사회에서 ‘관용’(tolerance)?
- 3) 1099년 보고밀파 지도자 바실레오스 화형식(Auto da Fé).
- 4) 비잔티움 신학자 겸 이단학자 에우티미오스 지가베노스(Euthymios Zigabenos) 이단 심문관인가 ?
- 5) 결론

<개요>

본 논문은 비잔티움 신학자, 이단학자, 이단 심문관들에 대한 그리스 정교회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연구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제를 12세기 비잔티움 사회의 민중 신앙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12세기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비잔티움 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변경에서 이주해 온 토착민들과 외국인들의 대거 유입됨에 따라 외래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할 기회가 늘어났으며 심지어 이질적인 종교적 성향을 지닌 이단세력들이 증대했다. 특히 알렉시오스 1세 콤네노스 황제 치세에는 보고밀파(Bogomils) 혹은 파울리키우파(Paulicians)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단사상이 비잔티움 사회에 폭넓은 호소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비잔티움 정부와 정교 당국은 정교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 이단 세력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단 심문과 화형과 같은 대규모 이단 척결 행위는 시행 하지 않았으며 주로 설득과 교화를 통해 이단들을 정교 신앙으로 편입시키려 유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장 “비잔티움 정교의 관용 ?”에서 저자는 비잔티움 정교의 관용성의 의미를 설명한다. 비잔티움 정교의 설득과 교화를 통한 대응방식은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정교회의 교리 자체가 서방 교회 보다 더 관용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12세기 비잔티움 정교 사회가 변모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즉 12세기에 외국인들 즉 튀르크인, 프랑크인, 아르메니아인, 튀르크인, 그루지야인, 불가리인 등 인접한 지역에서 온 수 많은 이민자 혹은 외국 상인들 혹은 방랑 수도승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진 시기에 콘스탄티노플 주민들은 외국인들의 삶의 방식과 외국인 대한 태도 혹은 제도적 통제에 친숙해 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장 “콘스탄티노플 화형식”에서 저자는 1099년 알렉시오스 1세 황제 치세에 보고밀파 지도자 바실레오스가 콘스탄티노플 히포드롬에서 공개적으로 화형 된 사건을 해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 이전과 이후에 이단자들에 대한 다른 어떤 화형식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저자는 안나 콤네노스와 에뎃사의 마테오의 저서에 언급된 몇몇 구절을 분석하는데, 이에 따르면 주로 비잔티움 정부의 이교도에 대한 대응은 제국에 존재한 모든 이단 세력들을 척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상류 사회에 침투한 이단 세력과 이로 인해 일어날 정치적 혹은 종교적 분열을 억제하는데 있었다. 나머지 일반 민중 사회에 공존했던 이단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하게 다루었다.

4장 “신학자 겸 이단학자, 에우티미오스 지가베노스(Euthymios Zigabenos)는 이단 심문관인가?”에서 저자는 알렉시오스 1세 황제 치세에 등장하는 정교 신학자 에우티미오스 지가베노스와 그가 편찬한 ‘도그마티케 파노플리아(*Dogmatike Panoplia* : 이단학 백과사전)을 소개한다. 저자는 보고밀파 지도자 바실레오스의 화형식 이후 황제의 명으로 편찬된 이 저작물의 구성과 편찬 방식을 설명하고 편찬자의 역할을 규정한다. 즉 도그마티케 파노플리아는 제국에 존재하는 이단 세력들을 분류하기 위해 편찬된 것이었으며 편찬자 에우티미오스 역시 이단 재판관/심문관(inquisitor)이 아니라 단지 정교회의 올바른 민중 신앙관을 정립하고자 했던 신학 교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평> 본 연구는 12세기 비잔티움 사회의 민중 신앙관을 중심으로 정교회 혹은 정교회 신학자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려 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 생각한다. 특히 중세 비잔티움 정교회의 이단에 대한 ‘관용성’의 의미를 서방 카톨릭 교회의 ‘불관용성’에 비추어 해석하기 보다는 12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사회 변화 속에서 찾으려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견해라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본문에서 ‘비잔티움 정교회의 민중 신앙관이 무엇인가?’ 또는 ‘신학자-이단학자들의 역할이 비잔티움 정교회 민중 신앙관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